

파르메니데스의 단편 2에 등장하는 양상문의 역할

강성훈*

【요약】

파르메니데스는 단편 2에서 사유를 위한 탐구의 길이 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는 ‘있다라는, 그리고 있지 않음 수 없다라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있지 않다라는, 그리고 있지 않음이 필연적이다라는 길’이다. 하지만 여기에 붙어있는 양상문의 역할은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채로 이 두 길은 그냥 ‘있다라는 길’과 ‘있지 않다라는 길’이라고 불려왔다. 본 논문은 파르메니데스가 했던 작업이 맥락-상대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인 그리스어 ‘einai(있음)’를 맥락을 초월해서 고정불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는 작업이었으며, 양상문은 그의 작업이 그러한 성격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고 제안한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길은 ‘있지 않음이 섞여있지 않은 것으로서의 있음’의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있음이 섞여있지 않은 것으로서의 있지 않음’의 길이다. 그러면 ‘있음과 있지 않음이 섞여있는 것으로서의 의견의 길’의 지위가 분명해지며, 파르메니데스의 시에 등장하는 길이 모두 몇 개이며 단편의 각 부분이 어떤 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많은 혼란이 해소될 수 있다.

【주제어】 파르메니데스, 있다, 사유, 진리, 파르메니데스의 세 길

* 서울대학교 철학과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0-358-A00019). 익명의 심사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본 논문은 ‘길게 돌아가야 할 우회로의 도면’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그 우회로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I. 시작하는 말

서양철학의 역사에서 흔히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론을 시작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말로 ‘존재론’이라고 번역되는 영어 ‘ontology’, 혹은 라틴어 ‘ontologia’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einai하는 것(to on)’에 대한 논의를 의미하며, 이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파르메니데스인 것이다. 파르메니데스의 등장 이후에 모든 고대철학자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파르메니데스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파르메니데스의 등장은 그리스 철학사에서 그에 비견할 만한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스의 등장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데에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가 있지만, 그 사건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없다.

파르메니데스의 주장들 중에서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to on’이 하나이며 생성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파르메니데스가 이야기하는 ‘to on’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이며 생성소멸하지 않는다는 그의 주장이 정확히 어떤 주장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가까운 장래에 이 논란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문제와 관련한 단행본만 수십 권이 출판되었고 논문은 수백 편에 이르니 논쟁사를 정리하는 것도 보통일은 아닐 것이며,¹⁾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을

1) 다행히도 기존의 논쟁이 큰 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틈틈이 정리해준 연구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토록 많은 연구서들과 논문들을 모두 직접 읽어야만 논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현 시점에서 논쟁사를 파악하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국문으로는 강철웅, 『파르메니데스에서 진리와 독사(Doxa): 세 텍스트 부분의 상호 연관에 주목한 파르메니데스 단편 해석』(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52-65이 있고, 영문으로는 John Palmer, *Parmenides & Presocratic Philosophy*(Oxford University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것이 오늘날의 연구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파르메니데스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철학활동을 했던 고대철학자들 자신도 각기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을 다르게 해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철학사’라는 작업이 확립되어 있지 않던 시기에 이들이 파르메니데스의 구절을 놓고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감론을박을 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to on’에 대한 파르메니데스의 규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철학자들이 각기 서로 매우 다른 철학적 체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은,²⁾ 이들이 파르메니데스의 ‘to on’을 서로 달리 해석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연구자들만이 아니라 당대의 철학자들도 파르메니데스의 ‘to on’을 서로 달리 해석했다는 것을 승인한다면, 이것은 파르메니데스가 했던 작업의 성격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준다.

영어의 be 동사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einai 동사는 당연하게도 일상적인 언어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였다. 그리고 일상용어로서의 einai는 맥락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의미와 용법으로 사용되었다.³⁾ 본 논문을 통해서 필자는 파르메니데스가 했던 작업이 맥락-상대적으로 사용되었던

Press, 2009), 8-32이 있다.

2) ‘to on’에 대한 파르메니데스의 규정을 받아들인 철학자들을 누구로 파악하는지에 따라서 이들이 구축한 철학 체계의 상이성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파르메니데스의 바로 다음 세대에 국한해서 이야기하자면, 20세기 중반까지는 소위 ‘엘레아 학파’라고 불리는 제논과 멜리소스 정도가 ‘to on’에 대한 파르메니데스의 규정을 받아들인 철학자들이고, 소위 ‘다원론자’라고 불리는 엠페도클레스, 아낙사고라스, 원자론자 등은 그런 규정을 거부한 철학자들로 간주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다원론자들도 사실은 ‘to on’에 대한 파르메니데스의 규정을 받아들였다는 생각을 가진 연구자들이 많아졌으며, 이 자리에서 자제히 논의할 수는 없지만 필자는 이러한 연구자들의 생각에 동의한다.

3) Charles H. Kahn, *The Verb ‘Be’ in Ancient Greek*(D. Reidel Publishing Company, 1973; reprinted with a new introduction by Hackett, 2003)은 einai 동사의 다양한 의미와 용법에 대한 충실한 분석을 담고 있다.

단어인 einai를 정언화(定言化)하는 작업, 즉 einai를 그때그때의 맥락을 초월해서 고정불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는 작업이었다는 제안을 할 것이다.⁴⁾ 파르메니데스가 단편 2에 ‘~일 수밖에 없다’, ‘~이 필연적이다’ 등의 양상문을 추가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작업이 그러한 성격의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였다고 볼 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단편 2의 양상문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파르메니데스의 진리편 전체를 보다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II. 단편 2에 등장하는 양상문

잘 알려져 있듯이, 파르메니데스의 시는 서시 부분과 진리 부분, 의견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서시 부분은 단편 1, 진리 부분은 단편 2에서 단편 8의 중간까지, 의견 부분은 단편 8의 중간 이후부터 나머지 단편들 모두이다. 단편 1에서 젊은이(아마도 파르메니데스)는 마차에 실려 여신에게 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단편 1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신은 찾아 온 젊은이를 환영하며 그에게 ‘잘 등글려진 진리의 흔들리지 않는 심장’과 ‘그 속에 참된 확신이 없는 가사자(可死者)들의 의견들’을 모두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단편 1에서 바로 이어지는) 단편 2에서 여신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자, 이제 내가 말할 터이니, 그대는 이야기를 듣고 명심하라,

4) 필자가 여기에서 ‘정언화’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파르메니데스를 비롯해서 einai에 대해서 철학적 반성을 했던 그리스 철학자들의 작업을 모두 ‘정언화’라는 틀 속에서 파악하고자하는 보다 큰 기획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언화’라는 말을 단지 ‘맥락-상대적으로 사용되는 말을 맥락을 초월해 고정불변의 의미를 가지는 말로 만드는 작업’의 의미로만 이해해도 충분하다.

탐구의 어떤 길들만이 사유를 위해 있는지.
 그 중 하나는 있다라는, 그리고 있지 않을 수 없다라는 길로서,
 설득의 여로이며(왜냐하면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있지 않다라는, 그리고 있지 않음이 필연적이다라는
 길로서,
 그 길은 전혀 배움이 없는 길이라고 나는 그대에게 지적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있지 않은 것을 그대는 알게 될 수도 없을 것이고(왜
 냐하면 실행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지적할 수도 없을 것이기에.)⁵⁾

사유를 위해 있는 탐구의 길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이야기하겠다는데서, 여신은 첫 번째 길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있다라는, 그리고 있지 않을 수 없다라는(hopōs estin te kai hōs ouk esti mē einai)’ 길이라고 이야기하며, 두 번째 길도 그냥 ‘있지 않다라는, 그리고 있지 않음이 필연적이다라는(hōs ouk estin te kai hōs khreōn esti mē einai)’ 길이라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뭐가 있고 또 있지 않다는 말인가? 또한 여기에서 ‘있다(esti)’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으로 사용된 것인가? 우리말에서도 누군가가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스어 ‘einai’가 우리말의 ‘있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용법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냥 ‘esti’(einai의 3인칭 단수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의 이야기인지를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⁶⁾

파르메니데스에 관한 수많은 글들 중에서 아마도 과반수는 이 두 문장의 주어와 무엇인지, 그리고 ‘esti’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여신의 길에 대한 규정은 오늘날의 연구자들에게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이 당혹스러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5) 파르메니데스의 인용은 모두 기본적으로 김인곤 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선집』(아카넷, 2005)을 따르되 필요한 부분은 약간의 수정을 했다.

6) 그리스어 ‘einai’와 우리말 ‘있다’의 의미와 용법을 비교한 것으로 강성훈, 「고대 그리스어 ‘einai’에 해당하는 한국어는?: 비정언적 존재 개념으로서의 ‘있음’과 ‘einai’」, 『서양고전학연구』 48(2012)을 참조할 수 있다.

위해서 대개 진리편의 나머지 부분들, 특히 단편 8에서 to eon⁷⁾이 어떻게 이야기되는지를 고려해서, 단편 2에서 ‘esti’의 주어는 무엇이며 그것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해 왔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가 분명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철학자가 어떤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사용된 모든 맥락을 고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적어도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단편 8을 비롯한 진리편의 나머지 부분에 주목한 나머지 정작 단편 2에서 여신이 하는 이야기 전체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einai’를 철학의 주제로 삼은 것은 파르메니데스가 최초였다는 점을 상기 하면, 오늘날 연구자들이 느끼는 당혹감을 당대의 독자들도 느꼈으리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떤 철학자가 어떤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할 때는 보통 그 단어가 철학적 논의 맥락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 범위를 가지는 말인지를 아는 경우이다. 그러한 선지식을 배경으로 그 특정 철학자가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단어가 사용된 모든 맥락을 고찰하게 되는 것이다. 파르메니데스와 당대의 독자들 사이에서는 ‘einai’와 관련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대의 독자들이 단편 8을 비롯한 뒤의 이야기들을 먼저 읽고 나서 단편 2 부분을 읽는 것이 아닌 한, 파르메니데스는 당대의 독자들이 뒷부분을 먼저 읽어야 단편 2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쓰지는 않았으리라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단편 2를 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양상문의 존재이다. 단편 2에서 여신은 두 길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한 길은 ‘있다라는 길’이고 다른 길은 ‘있지 않다라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7) einai 동사의 분사는 파르메니데스 이후에는 ‘on’이라고 쓰게 되지만, 파르메니데스는 아직 ‘eon’이라는 철자법을 따르고 있다.

않는다. 여신은 각각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양상문을 붙여서 한 길은 ‘있다라는,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길’이고 다른 길은 ‘있지 않다라는, 그리고 있지 않음이 필연적이다라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특이하게도 이런 양상문은 단편 2에만 등장하고 진리편의 나머지 부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⁸⁾ 이런 상황에서 진리편의 나머지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을 통해서 단편 2의 두 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파악하려는 연구자들에게는 여기에 왜 양상문이 붙어있는지가 의아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단편 2에 붙어있는 양상문은 그냥 무시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여기에 양상문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문젯거리로 간주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양상문이 왜 붙어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며 양상문이 붙어있는 이유에 대한 잠정적 추정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⁹⁾ 어떤 학자들은 양상문의 부가가 두 길이 배중적 선언관계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¹⁰⁾ 심지어 파르메니데스가 여기에 양상문을 붙인 것은 양상적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¹¹⁾ 요컨대, 파르메니데스가 두 길을 소개하

8)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단편 6의 1행에 등장하는 ‘esti gar einai’를 ‘있을 수 있다’라는 양상문으로 읽을 수 있다. 필자는 이 문장에 등장하는 ‘einai’를 부사적으로 읽는 해석, 즉 이 문장을 ‘있음을 위해 있다’ 정도로 읽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 문장을 양상문으로 읽더라도 어쨌거나 이것이 단편 2에 등장하는 양상문과 같은 것은 아니다.

9) 예컨대, Charles H. Kahn, “The Thesis of Parmenides”, *Review of Metaphysics* 22(1969), n. 9: 707.

10) 예컨대, Alexander Mourelatos, *The Route of Parmenide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Parmenides Publishing, 2008; originally published by Yale University Press, 1970), 71-73; G. S. Kirk, J. E. Raven, and M. Schofield,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2nd ed.(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245-246; Richard J. Ketchum, “Parmenides on What There Is”,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20(1990), 174-175; 강철웅, 『파르메니데스에서 진리와 독사』, 65-66.

11) Frank A. Lewis, “Parmenides’ Modal Fallacy”, *Phronesis* 54(2009): 1-8. Michael V. Wedin, *Parmenides’ Grand Deduction*(Oxford University Press,

면서 양상문을 붙인 것의 의미를 (단순히 방어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외로는 핀켈버그와 팔머가 있다.¹²⁾ 이 중에서 핀켈버그는 아예 여기에 부가된 것들이 양상문이라는 것을 부정한다. 그는 첫 번째 길 규정의 뒷부분인 ‘hōs ouk esti mē einai’를 ‘있지 않을 수 있다’로 읽지 않고 ‘있지 않음이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읽는다. 즉, 이 문장을 ‘esti + 부정사’로 양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mē einai’가 주어이고 ‘ouk esti’는 일반 동사로 보는 것이다. 핀켈버그가 이런 해석을 하는 배경에는 첫 번째 길의 앞부분인 ‘hopōs estin’의 주어가 ‘esti’ 관련어여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우리말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어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종종 생략될 수 있다. 그런데 역시 우리말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어에서도 주어가 생략되는 것은 맥락을 통해서 주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때이다. 단편 2의 맥락에서 ‘estin’의 주어 역할을 할 명사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단편 2의 맥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주어는 동사 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것밖에 없다.¹³⁾ 필자는 여기까지의 생각에 대해서는 핀켈버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그가 estin으로부터 찾아야 할 주어를 분사인 eon이 아니라 부정사인 einai로 본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아무런 맥락 없이 “사랑하고 있군”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기에서 주어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이지 ‘사랑함’이 아니고, “크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기에서 주어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큰 것’이지 ‘큼’이 아니다. 핀켈버그 식으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 길은 ‘있는 것이 있고, 있지 않은 것이 있지 않다’는 길이어야 할 텐데, 그리스어의 뒷부분에는 부정사는 있어도 분사는

2014), 34-43은 어떤 의미에서 루이스가 제기하는 양상적 오류 비판에 대한 웨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12) Aryeh Finkelberg, “Parmenides’ Foundation of the Way of Truth”,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6(1988): 45-49; John Palmer, *Parmenides & Presocratic Philosophy*(Oxford University Press, 2009), 83-105.

13) Finkelberg(1988), 45-46.

없으니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첫 번째 길을 ‘있음이 있고, 있지 않음이 있지 않다’는 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핀켈버그의 해석의 문제점은 두 번째 길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 번째 길을 ‘있음이 있고, 있지 않음이 있지 않다’로 해석하는 핀켈버그에게는, 두 번째 길이 ‘있음이 있지 않고, 있지 않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 짝이 잘 맞는 것이 될 것이다. 핀켈버그는 두 번째 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길의 뒷부분인 ‘hōs khreōn esti mē einai’에서 ‘khreōn’과 ‘esti’를 연결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을 거부하고 ‘khreōn’이 ‘esti mē einai’ 전체를 꾸미는 부사로 간주한다. 이제 두 번째 길의 생략된 주어를 ‘einai’로 보면, 두 번째 길은 ‘있음이 있지 않다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있지 않음이 있다는 길’이 된다. 그런데 이런 해석에서는 ‘필연적으로’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 때문에 핀켈버그 해석에서의 두 길에 대한 묘사가 정확한 대구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핀켈버그는 왜 ‘필연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핀켈버그는 ‘kreōn’과 ‘esti’를 떼어 놓는 기묘한 독법을 들고 나왔지만, 이렇게 떨어뜨려놓은 ‘khreōn’은 없어도 좋을, 아니 사실은 없어야 좋을 말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핀켈버그가 두 번째 길의 앞부분인 ‘hōs ouk estin’의 주어도 ‘einai’로 본다는 것이다. 두 길에서 ‘estin’과 ‘ouk estin’의 주어를 ‘말해질 수 있고 사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을 오웬이 제시하기 전에는¹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어를 ‘있는 것’으로 보았으니, 핀켈버그가 ‘ouk estin’의 주어를 ‘einai’로 보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학자들이 주어를 ‘있는 것’으로 본

14) G. E. L. Owen, “Eleatic Questions”. *Classical Quarterly* NS 10(1960), reprinted in *Studies in Presocratic Philosophy* vol. II, eds. R. E. Allen and David J. Furley(Routledge and Kegan Paul, 1975), 48-81.

이유는 진리편의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 ‘있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핀켈버그는 진리편 전체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주어가 ‘einai’이기 때문에 주어를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단편 2의 맥락만 가지고 주어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단편 2에서 찾을 수 있는 주어는 동사 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것밖에 없다는 이유로 ‘estin’의 주어를 ‘einai’로 보았다. 그런데 그 논리에 따르면 ‘ouk estin’의 주어도 ‘einai’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다른 맥락 없이 ‘사랑하고 있다’로부터만 찾을 수 있는 주어는 ‘사랑하는 자’이고 ‘크다’로부터만 찾을 수 있는 주어는 ‘큰 것’이듯이, ‘사랑하지 않는다’로부터만 찾을 수 있는 주어는 ‘사랑하지 않는 자’, ‘크지 않다’로부터만 찾을 수 있는 주어는 ‘크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ouk estin’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주어는 ‘mē eon’, 혹은 핀켈버그처럼 분사가 아니라 부정사를 주어로 보려면 최소한 ‘mē einai’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논의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단편 2의 두 번째 길의 주어는 ‘있다’ 계열의 명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자.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두 번째 길의 주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암묵적으로 두 번째 길의 주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파르메니데스의 시 해석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혼란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핀켈버그는 단편 2에 등장하는 양상문이 양상문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니까, 결국 양상문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는 팔머의 시도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겠다. 팔머는 양상문 부분이 단순히 부가적으로 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자신의 해석을 ‘양상적 해석’이라고 부른다.¹⁵⁾ 팔머에 따르면 첫 번째 길은 ‘있다’라는 길이라기보다 ‘필연적으로 있다’라는 길이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길은 ‘있지 않다’라

15) Palmer(2009), 45-50.

는 길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있지 않다’라는 길이다.¹⁶⁾ 단편 2 이후에는 여신이 양상어를 따로 붙이고 있지 않지만, 팔머는 이후에 양상어가 없이 사용된 ‘esti’나 ‘to eon’도 모두 양상어를 추가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팔머가 파르메니데스를 이해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필자가 제시하게 될 이해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단편 2에 한번 등장한 양상어가 진리편의 나머지 전체에 계속 생략된 채로 따라다닌다는 식의 팔머의 해석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파르메니데스가 양상어를 계속 붙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팔머는 ‘있고 또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있지 않고 또 있을 수 없는 것’ 등의 표현을 매번 쓰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하는데,¹⁷⁾ 이러한 설명은 대단히 궁색하다. 팔머의 해석에 따르면 ‘있다 그리고 있지 않을 수 없다’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 된다. 따라서 ‘있고 또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간단히 줄여려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있는 것’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사실 팔머 자신도 ‘what is and cannot not be’라는 표현을 계속 쓰기가 번거로워서 이것을 줄여서 간단히 ‘what must be’라고 부르는 것이다.¹⁸⁾

팔머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상문의 부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양상문이 단편 2에만 붙어 있고 진리편의 나머지 부분에는 빠져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잠시 단편 2의 두 길에서 ‘estin’과 ‘ouk estin’의 주어가 무엇인지라는 문제에 눈을 돌려보자.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오웬은 주어가 ‘있는 것’이라는 전통적 해석에 반대해서 ‘말해질 수 있고 사유될 수 있는

16) 논의가 너무 간단해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어쩌면 David Sedley, “Parmenides and Melissu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Early Greek Philosophy*, ed. A. A. Long(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14-116도 이런 생각을 표명하고 있는지 모른다.

17) Palmer(2009), 102-105.

18) Palmer(2009), 137-188.

것'을 주어로 제시하는 해석을 내놓았다. 오웬 이후에는 이것이 오히려 표준적 해석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지만, '말해질 수 있고 사유될 수 있는 것'이란 단편 2의 맥락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주어라는 점이 오웬 해석의 결정적인 문제라고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실질적인 주어를 '말해질 수 있고 사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나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나, 적어도 단편 2의 맥락에서 형식적인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것', '무엇이 되었든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정도로 봐야 한다는 데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¹⁹⁾ 요컨대, 단편 2의 주어는 단편 2 부분을 읽는 독자가 채워 넣을 수

19) 예컨대, Schofield,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245; Jonathan Barnes, *The Presocratic Philosophers*(Routledge, 1979), 162-163; T. M. Robinson, "Parmenides on Ascertainment of the Real",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4(1975), 624; Robinson, "Parmenides on the Real in its Totality", *Monist* 62(1979), 54 등. 이 중에서 반드는 실질적 주어가 '말해질 수 있고 사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로빈슨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주어가 '무엇이 되었든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무엇이 되었든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정도라는 주장은, 주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무렐라토스에 의해서 주도된 소위 '문장형식 해석'도 큰 틀에서 이런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Mourelatos 2008, 51-55). 마찬가지로, 단편 2의 두 길은 주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예컨대, Leonardo Taran, *Parmenides: A Text with Translations, Commentary, and Critical Essays*(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36-38)도 역시 이런 그룹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앞에서 다른 맥락 없이 '있다'로부터만 찾을 수 있는 주어는 '있는 것'이고 '있지 않다'로부터만 찾을 수 있는 주어는 '있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편 2의 두 길인 '있는 것은 있다라는 길'과 '있지 않은 것은 있지 않다라는 길'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른 맥락 없이 누군가가 "크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 들었을 때, 그 문장의 주어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큰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것은 크다."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 "큰 것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동어반복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그냥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주어를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 "그 큰 것은 네모난가, 둥근가?" 따위의 추가 질문을 할 때 주어로 '큰 것'을 잡을 수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이다. "큰 것은 크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에게는 "그 큰 것은 네모난가, 둥근가?"라는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르메니데스도 결국 독자를 상대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이고, 파르메니데스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는 독자가 채워 넣을 수 없는 것을 주어로 삼은 채로 그것을 생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해석상의 원칙을 ‘독자 고려의 원칙’이라고 불러보자. 필자의 생각으로는 ‘독자 고려의 원칙’이 양상문의 부가를 이해할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Ⅲ. 양상문을 추가한 파르메니데스의 의도

앞에서 우리는, ‘einai’를 철학의 주제로 삼은 것은 파르메니데스가 최초였고 그러한 점을 상기하면 여신이 두 길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오늘날 연구자들이 느끼는 당혹감을 당대의 독자들도 느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파르메니데스가 자신이 하는 작업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그는 당대 독자들이 느꼈을 당혹감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당대 독자들이 여신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서를 진리편의 서두부터 남겨두었으리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물론 파르메니데스가 서사시적 매체를 사용하기로 한 이상²⁰⁾ 독자를 위해서 자신의 작업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상스럽다. “큰 것은 크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무엇이든 큰 것은 크다.”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 큰 것’이라고 지칭할 만한 특정한 어떤 것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그 큰 것’이 네모난지 여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스러운 이유이다. 이에 비해, 그냥 “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필자 역시 단편 2의 두 길의 주어가 ‘무엇이 되었든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큰 틀에서 생각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20) 파르메니데스가 왜 서사시적 매체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강철웅(2004), 「파르메니데스의 철학 단편에서 서시의 의미와 역할」, 『서양고전학연구』 21, 25-27을 참조하라.

성격을 미주알고주알 설명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 2를 세심히 살펴보면 그러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양상문의 부가는 그러한 단서들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단편 2에 등장하는 두 길은 ‘있다라는 길’과 ‘있지 않다라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 사실 팔머의 해석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가 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은,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이, 당대의 독자들조차 그냥 ‘있다라는 길’, ‘있지 않다라는 길’이라는 이야기만 듣고서는 이 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를 기본 사실로 놓고서, 파르메니데스의 입장에 서서 그가 독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추정해보자. 지면관계상 이 추정은 다소 독단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필자는 파르메니데스가 단편 2 부분을 쓰면서 가졌던 생각을 재구성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이 재구성 전체가 그럴듯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필자의 추정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여신은 1-2행에서 탐구의 어떤 길들만이 사유를 위해 있는지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듣고 명심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서 두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선 확인할 것은, 여신이 탐구의 길이 둘만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신은 ‘사유를 위한(noēsai)’ 탐구의 길이 둘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파르메니데스의 시에 등장하는 길이 모두 합쳐 둘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생각처럼, 길이 모두 둘뿐이고 ‘사유를 위한’이란 제한어가 길의 개수에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²¹⁾

21) 길이 모두 둘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Alexander Nehamas, “On Parmenides’ Three Ways of Inquiry”, in his *Virtues of Authenticity: Essays on Plato and Socrates*(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originally published in *Deukalion* 33/34, 1981); Patricia Curd, *The Legacy of Parmenides: Eleatic Monism and Later Presocratic Thought*(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Nestor-Luis Cordero, *By*

하지만 적어도 단편 2만을 근거로 탐구의 길이 모두 둘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어쨌거나, 길이 몇 개인지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사유를 위한’이라는 제한어가 붙어있다는 사실은 기억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곧장 여신은 첫 번째 길로서 ‘있다라는 길’을 제시한다. 여기에 주어와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독자 고려의 원칙’을 종합하면, 주어를 특정하는 것이 파르메니데스의 목적과 어긋났으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당대 독자들이 느꼈을 당혹감을 고려하면, 파르메니데스가 여기에서 주어를 특정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주어 없이 첫 번째 길을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있다’는 탐구의 결론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추정도 할 수 있다. 주어를 특정할 수 없다면, 그 특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탐구의 결론일 수는 없다. 탐구의 결과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면, 그 때 비로소 그것이 있다는 것이 결론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있다라는 길’이 ‘탐구의 길’로 명명된 것 자체가 이미 ‘있다’가 탐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결론에 이미 도달했다면 더 이상 탐구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니 말이다.

파르메니데스가 주어를 밝혀줌으로써 독자의 당혹감을 덜어줄 수 없었다면, 술어는 어떤가? 우리는 지금까지 ‘esti’를 편의상 ‘있다’로 번역해왔다. 하지만 이 말이 영어의 ‘exist’에 해당하는 ‘존재한다’는 말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레슬리 브라운이 그리스어에서 einai의 완전용법과 불완전용법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관찰을 한 이래,²²⁾ ‘esti’가 보어 없이 쓰인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Being, It is: The Thesis of Parmenides(Parmenides Publishing, 2004). 이 중에서 적어도 코르데로는 ‘사유를 위한’이라는 제한어가 결국에는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논증을 제시한다. Cordero(2004), 40-42. 지면 관계상 코르데로의 논증에 대한 논의를 할 수는 없으나, 그런 제한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는 우리의 논의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22) Leslie Brown, “The verb ‘to be’ in Greek philosophy: some remarks”, in *Language: Companions to Ancient Thought 3*, ed. Steven Ever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212-236.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구나 칸은 소위 ‘존재적 용법’이라는 것 자체가 최소한 여섯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²³⁾ 결국, ‘esti’의 주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동사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주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대의 독자들은 ‘esti’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 필자는 파르메니데스가 자신이 무슨 뜻으로 ‘esti’를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독자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양상문을 부가했다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²⁴⁾ 당대 독자들(가사자들, 단편 1, 30행; 단편 6, 4행)은 ‘esti’의 주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esti’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한다. 또 보어가 있는 경우에는 보어로 무엇이 오는지에 따라 ‘esti’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한다. 또 ‘esti’를 수식하는 부사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esti’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당대 독자들의 용법에서는 ‘esti’에 고정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일상 어법에서 ‘esti’는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것과 결합할 수 있는데, ‘esti’에 고정된 의미가 없으면 그렇게 결합된 것에도 고정된 의미가 없다.

진리편의 나머지 부분에서 엿볼 수 있는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는 성공적인 사유(noēsai)가 있을 수 없다. “지성(noos)은 있는 것(to eon)을 있는 것에 붙어 있음(to eontos ekhesthai)으로부터 떼어내지 않을 것이므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곁에 있는 것들(homōs apeonta pareonta)을 지성으로 확고부동하게 바라보아야”(단편 4, 1-2행) 성공적인 사유가 발생할 텐데, “어찌할 도리 없음이 헤매는 지성(plagkton noon)을 가사자들의 가슴 속에서 인도하고 있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머리가 돌인 채로 헤매고

23) Kahn(1973), 228-330.

24) Mourelatos(2008), 72-73는 필자와 비슷하게 양상문이 설명적(epexegetic) 역할을 한다는 제안을 한다. 다만 무렐라토스는 서술적 해석의 틀 안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임에 비해, 필자는 존재적 해석이니 서술적 해석이니 진리사적 해석이니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 설정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할 수는 없으나,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다.

있는”(단편 6, 4-6행) 것이다. 파르메니데스가 보기에는 성공적인 사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esti’의 의미가 고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고정된 의미의 ‘esti’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는 성공적인 사유를 위한 탐구의 길로 우선 ‘있다라는 길’을 제시한다.

그런데 고정된 의미에서의 ‘있음’이란 거기에 ‘있지 않음’이 섞여있지 않은 것이다. 맥락에 따라서 ‘있음’의 의미가 달라지면, 이것과 결합한 것은 한 맥락에서는 있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있지 않은 것이 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 파란 책이 책상 위에 있을 때, 이것은 파란 것으로 ‘있는 것’이지만 의자 위에는 ‘있지 않은 것’이다. 파르메니데스가 고정적인 의미로서의 ‘있다’의 길이 탐구의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당대의 독자들은 고정적인 의미로서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파르메니데스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있다라는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있다라는 길’이 ‘있지 않을 수 없다(ouk esti mē einai)라는 길’, 즉 ‘있지 않음(mē einai)이 없다(ouk esti)라는 길’²⁵⁾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음 행에서 여신은 ‘있다라는 길’이 진리(alētheiē)를 따르기에 이 길이 설득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오늘날 영어의 ‘truth’라는 말은 너무나도 희석된 의미로 사용되어서, 어떤 것이 사실이기만 하면 그것은 truth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파란 책이 책상 위에 있을 때, “It is true that a blue book is on the desk”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25) 양상을 나타내는 ‘esti + 부정사’의 구문이 마치 부정사가 주어이고 esti가 일종의 존재적 의미를 가지는 것과 유사하다는 상세한 분석으로 Kahn(1973), 292-296을 참조하라.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칸은 einai의 존재적 용법을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그는 그 중에서 다섯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들 중에 양상 구문과 유사한 것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oude tis est’ alke”(『오뒤세이아』 12.120)는 “[스킬라를] 막음이 없다”, 즉 “[스킬라를] 막을 수 없다”는 정도의 뜻이다.

우리말에서는 “파란 책이 책상 위에 있다는 것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단히 이상스럽게 들린다.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을 ‘진리’라고 부르기를 꺼려한다. 우리가 오늘날 ‘진리’라는 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직관을 파르메니데스도 공유하고 있었다면, 그는 고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estin*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alētheiē*가 성립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²⁶⁾ 그리고 그렇다면 왜 파르메니데스가 사유를 위해서는 ‘있지 않음이 배제된 것으로서의 있음’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성공적인 사유가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진리라는 것이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있음과 있지 않음이 섞여 있는 길을 따라가서는 성공적인 사유에 도달할 수 없다. 순수한 있음의 길은 성공적인 사유를 보장해주는 설득의 여로(*peithous keleuthos*)여서, 이 길을 가면 그 결과 참된 확신(*pistis alēthēs*, 단편 1, 30행)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있음과 있지 않음이 섞여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순수한 있음을 통해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있지 않음을 통해서도 충족되는 것이 아닌가? 성공적인 사유의 조건 자체를 충족시켜주는 길로는 순수한 있음의 길만이 아니라 순수한 있지 않음의 길도 있다. 그래서 ‘있지 않다’라는, 그리고 있지 않음이 필연적이다라는 길’도 사유를 위한 길이다. 문제는 이 길에는 전혀 배움이 없다(*panapeutheia*)는 점이다. ‘있지 않음이 필연적인 것으로서의 있지 않은 것’은 알 수도 없고 지적할 수도 없다. 의자 위에 있지 않은 파란 책은 책상 위에는 있을 수 있다. 빨간 것으로 있지 않은 책상 위의 책은 파란 것으로는 있을 수 있다. 현실 세계에 있지 않은 피터팬은 네버랜드에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움을 가질 수

26) 여신이 ‘진리의 흔들리지 않는 심장’과 ‘가사자들의 의견’을 대비시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파르메니데스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파르메니데스는 보통사람들(가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참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있을지 모르겠으나, ‘있지 않음이 필연적인 것으로서의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움도 가질 수 없다. ‘바로 그 있지 않은 것(to ge mē eon)’, 즉 ‘있지 않음이 필연적인 있지 않은 것’에는 어떤 의미에서의 ‘esti’도 결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있지 않다. 그것은 책상 위에 있지도 않고, 파란 것으로 있지도 않고, 책으로 있지도 않고, 네버랜드에 있지도 않다. 혹시 그것에 대해 배우려는 시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anuston). 도대체 우리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지적할 수도 없으니, 배움의 시도는 사실 시작조차 할 수 없다.

파르메니데스는 있다는 길과 있지 않다는 길에 각각 양상어를 붙임으로써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einai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독자에게 열어주었다. 당대의 일상 어법에서 einai는 항상 맥락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것이었다. 파르메니데스는 einai 자체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통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einai, 즉 맥락을 초월해서 고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einai를 제안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파르메니데스는 비정언적으로만 사용되던 개념인 einai를 최초로 정언화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서의 사유는 이렇게 정언화된 einai만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IV. 파르메니데스의 세 길

단편 2에서 파르메니데스가 하고 있는 작업의 성격이 분명해지면, 파르메니데스의 시에 길이 모두 몇 개인지, 또 시의 각 부분이 어떤 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혼란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사실 여신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단편 1의 마지막 부분과 단편 2만 보면, 왜 그토록 많은 논쟁과 혼란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여신의 이야기는 분명하다. 여신이 하는 이야기를 간단히 줄이면 다음과 같다. “너는 진리를 배울 것이고, 또 (진리가 담겨있지

않은) 의견을 배울 것이다. 그런데 사유를 위한 길이 단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진리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배움이 없는 길이다.” 그러면 배움이 있는 길이 둘이고 사유를 위한 길이 둘인데 사유를 위한 길 하나는 배움이 없는 길이니, 모두 합치면 길은 셋이라는 결론이 간단하게 따라 나온다.

단적으로 말해서, 단편 1과 단편 2에서 ‘배움’과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여신이 이 구분을 시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받아들이면 혼란은 없다.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개념들이 시 전체를 통해 일관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최소한 불분명한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²⁷⁾ 앞에서 핀켈버그에 대해 논의하며 잠깐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파르메니데스에게 개념의 비일관적 사용, 혹은 불분명한 사용의 혐의를 두는 것의 근원에는 단편 2의 두 번째 길의 주어가 ‘있는 것’이라는 뿌리 깊은 오해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앞으로의 논의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논란의 쟁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쟁점들을 일일이 따라갈 수는 없고, ‘배움’과 ‘사유’를 각각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서 혼란들이 정리될 수 있는지만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우선 단편 2의 첫 번째 길은 ‘있다는, 그리고 있지 않을 수 없다(혹은 있지 않음이 없다)는 길’, 두 번째 길은 ‘있지 않다는, 그리고 있지 않음이 필연적이라는 길’이며, 이 둘이 사유를 위해서 있는 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자. 그러면 사유를 위한 길은 아니지만 배움은 있을 수 있는 제 삼의 길은 ‘있음과 있지 않음이 뒤섞인 길’이 될 것이다. 이제 논란이 되는 구절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자.

27)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이에 대한 예외를 발견할 수 없었다.

1. 단편 7

이것, 즉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 결코 강제되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그대는 탐구의 이 길로부터 사유(noēma)를 차단하라.
 그리고 많은 경험에서 나온 습관이 그대를 이 길을 따라서
 주목하지 못하는 눈과 잡소리 가득한 귀와 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못하게 하라. 다만 나로부터 말해진, 많은 싸움을 담은 테스트를
 논변으로 판가름하라.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은 있음과 있지 않음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이미 1-2행은 제 삼의 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길로부터 사유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로부터도 1-2행이 제 삼의 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행 이하에서 묘사되는 길은 가사자들의 의견의 길이다. 3행 이하 역시 제 삼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⁸⁾

2. 단편 6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사유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있음을 위해 있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아니니까. 이것들을 꼼꼼이 생각해 보라고 나는
 그대에게 명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대를 위해 탐구의 이 길로부터 우선 ...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가사자들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면서
 머리가 돌인 채로 헤매는 (왜냐하면 어찌할 도리 없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헤매는 지성을(noon) 인도하고 있기에) 그 길로부터.
 그들은
 귀먹고 동시에 눈먼 채로, 어안이 병병한 채로, 판가름 못하는 무리로
 서, 이끌려 다니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있음과 있지 않음이 같은 것으로, 또 같지 않은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의 길이 되돌아가는 길이다.

28)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로 김남두(2001), 『파르메니데스의 단편에서 탐구의 길과 존재의 규범적 성격』, 『서양고전학연구』 17, 14-17을 참조하라.

3행에 공백이 하나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이 공백을 어떤 단어로 채우는지 길이 모두 세 개 인지 두 개인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이 공백에는 ‘제지한다(eirgō)’는 말이 있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제지되는 길이 둘이 있고 진리의 길은 제지되지 않는다고 하면,²⁹⁾ 결국 길이 모두 셋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길이 둘이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그래서 이 공백에 ‘시작할 것이다(αrxō)’가 들어간다고 주장한다.³⁰⁾ 그리고 길이 셋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할 것이다’가 공백에 들어간다는 것에 반대한다.³¹⁾

이 논쟁에는 1-2행을 어떻게 번역할지도 걸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다. 하지만 다른 논쟁거리는 차치하고, ‘시작할 것이다’가 들어가더라도 길이 모두 셋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만을 확인하도록 하자. 필자는 ‘제지한다’가 들어가거나 ‘시작할 것이다’가 들어가거나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필자가 선호하는 해석은 사실 ‘시작할 것이다’가 공백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번역에서 1-3행도 그런 해석에 맞춘 것이다.³²⁾ 우선 1-3행은 단편 2의 첫 번째 길을 가리킨다. 그리고

29) 타란은 진리의 길도 잠시 제지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간혹 타란은 네하마스, 코르테로, 커드처럼 길이 둘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오해되기도 하는데, 사실 타란은 길이 모두 셋이라고 생각한다. (1965), 59-61와 75-76.

30) Nehamas(1999), 129-132; Patricia Curd, *The Legacy of Parmenid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53-58. 코르테로는 ‘αrxō(내가 시작할 것이다)’ 대신에 ‘αrxei(너가 시작할 것이다)’를 선호한다. Nestor-Luis Cordero, *By Being, It is: The Thesis of Parmenides*(Parmenides Publishing, 2004), 97-124.

31) 공백에 들어가는 단어가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모두 셋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로는 팔머가 있다. Palmer(2009), 51-105.

32) 만약 ‘제지한다’가 들어간다면 1-3행의 번역도 좀 달라져야 한다. ‘제지한다’가 공백에 들어가면 1-2행 중 어딘가에서 단편 2의 두 번째 길에 대한 언급이 등장해야 하는데, 텍스트 상에서 두 번째 길에 대한 언급을 찾기가 좀 어렵다. 번역을 달리하는 경우, 2행에서 두 번째 길에 대한 언급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이 그렇게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8행을 보면 4-9행에서 묘사되는 길이 있음과 있지 않음이 섞인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우리의 해석에서는 제 삼의 길이다. 하지만 길이 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단편 2의 두 번째 길이 있음과 있지 않음이 섞인 길이라는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8행은 그들의 해석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6행의 ‘헤매는 지성’에 대한 언급은 이 길이 사유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즉, 4-9행은 단편 2의 두 번째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길이 모두 셋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개 ‘시작할 것이다’가 공백에 들어간다는 데에 반대하므로, ‘시작할 것이다’가 들어가면 단편 6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자. 공백에 ‘시작할 것이다’가 들어간다면, 여신은 도대체 무엇을 시작할 것이라는 말인가? 단편 1의 마지막에서 여신은 젊은이에게 진리와 의견을 배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단편 6에서 여신은 이제 그 가르침을 두 길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 가르침은 단편 8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앞에서 ‘있다는 길’에서 ‘있다’가 탐구의 결론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추정을 했다. 탐구의 길로서 ‘있다는 길’은 우선 ‘있다’를 놓고서 길을 떠나는 것이다. 여신은 ‘있다’를 놓는 데에서 출발해서 그 길에 있는 많은 표지(*sēmata*)들을 보여준다(단편 8, 2-3행). 하지만 단편 8의 50행 이르러서는 그 여정을 멈추고, 가사자들은 비록 헤매는 자들이지만(단편 8, 54행, cf. 단편 6, 5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견에 대한 배움을 주기 시작한다.

3. 단편 8, 6-9행

... 그것의 어떤 생겨남을 도대체 그대가 찾아낼 것인가?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자라난 것인가? 나는 그대가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라고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말하는 것도 사유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말할 수도 없고
 사유할 수도 없으니,
 [그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9행의 그리스어 원문은 ‘hopōs ouk esti’이고, 이것은 단편 2의 5행에 등장하는 ‘hōs ouk estin’과 거의 같은 구문이다. 그리고 단편 2에서는 이 길이 사유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사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 길이 사유를 위해 있다고 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 길은 사유할 수 없는 길이라면, 우리가 앞에서 사유가 없는 길을 제 삼의 길이라고 이야기했던 토대가 무너지고 만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길의 개수가 몇이며 어떤 구절이 어떤 길을 가리키는지의 문제가 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단편 8에서는 이미 ‘있다라는 길’의 여정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지금 여신은 있는 것이 생성소멸하지 않는다는 논증을 펴고 있는 중이다. 단편 2에서와 달리 여기에서는 9행의 ‘있지 않다’의 주어가 무엇인지가 분명하다. 9행의 주어는 지금의 논의에 앞서 3행에 등장한 ‘있는 것(eon)’이다. 6-7행에서 ‘그것’이 지칭하는 바가 바로 3행의 ‘있는 것’인 것이다. 여신은 7-8행에서 ‘있는 것이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자라났다’고 말하거나 사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8-9행에서 ‘있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사유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다. 6-9행의 맥락을 고려하면 여기에서도 사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된 것은 있음과 있지 않음을 섞는 제 삼의 길이다.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혼란은 두 번째 길의 주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혹시 단편 2의 맥락에서는 ‘독자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두 번째 길에서의 주어를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진리편을 모두 살펴본 후에 돌이켜보면 결국 두 번째 길의 주어가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할 여지는 없는가? 두 번째 길이 진리의

길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길이 ‘있는 것이 있지 않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지만, 일단 여신은 두 번째 길이 거짓이라거나 모순적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한 적이 없다. 여신이 제시한 두 번째 길의 문제는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없고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보다 중요하게는, 두 번째 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있지 않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하는 데 있다면, 두 번째 길의 뒷부분의 양상문은 도대체 왜 추가되었는지를 이해할 길이 없다. ‘있는 것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로 충분히 잘못이 드러날 텐데, 왜 ‘있는 것이 있지 않음이 필연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가? 두 번째 길의 주어는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자.

4. 단편 8, 13-18행

... 그것을 위해 디케(정의)는
 족쇄를 풀어서 생겨나도록 또 소멸하도록 허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딱 붙들고 있다. 이것들에 관한 판가름은 다음의 것에 달려
 있다.
 [그것은] 있거나 아니면 있지 않거나이다. 그런데 필연인 바 그대로,
 한 길은 사유될 수 없는 이름 없는 길로 내버려두고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길이 아니므로) 다른 한 길은 있고 진짜이도록 허용한다는 판가름이
 내려져 있다.

이제 우리는 제일 어려운 대목에 도달했다. “있거나 아니면 있지 않거나이다.” 뭔가 장엄함이 느껴지는 멋있는 말이다. 단편 2에 양상문이 붙어있다는 사실만 잠깐 기억에서 지우면, 단편 2의 이야기도 이렇게 멋있는 말로 만들 수 있다. “탐구의 길은 둘밖에 없다. 있다는 길과 있지 않다는 길.”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단편 8의 16-18행이 단편 2의 두 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이 구절이 단편 2의 두 길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17행에서 여신은 단편 2의 두 번째 길이 사유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셈이 된다. 그러면 정말로 이 두 길이 단편 2의 두 길을 지칭하는 것일까?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다시 한 번 우리가 ‘있다라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상기하자. 지금 이 구절도 큰 틀에서 보면 있는 것이 생성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는 맥락이고, 16행의 “있거나 아니면 있지 않거나이다”라는 말의 주어도 특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구나 이 구절의 직접적인 맥락은 주어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있거나 있지 않거나’에 달려있는 판가름이란, 디케가 있는 것이 생성하거나 소멸하도록 허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것이다. 여신은 디케가 족쇄를 푸는 경우에만 있는 것의 생성과 소멸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족쇄는 ‘있는 것’에 채워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족쇄가 풀어지면 ‘있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있는 것의 생성소멸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가름은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에 달려 있다.

여신은 판가름이 이미 내려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판가름은 도대체 어디에서 내려졌는가? 우리가 파르메니데스의 시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 이 판가름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 어딘가에서 내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판가름이 단편 2에서 내려졌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 단편 2에 등장하는 두 길의 주어가 모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판가름은 단편 2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다. 주어 문제를 떠나서도, 단편 2에서는 사유될 수 없다거나 이름이 없다는 따위의 이야기는 아예 등장한 적이 없다. 단편 2에서 두 번째 길은 ‘배움이 없는 길’로 묘사되었다. 단편 1과 단편 2에서 ‘배움’과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여신이 여기에 와서는 양자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판가름은 단편 2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판가름은 단편 6과 단편 7 부근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인용한 단편 6의 1행에서 여신은 (필자가 택하는 방식으로

1행을 번역하자면)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사유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khrē to legein to noein t’ eon emmenai)’라고 이야기한다. 있는 것이 있다고 사유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있는 것이 있다고 사유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있는 것이 있지 않다고 사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있는 것이 있지 않다는 길은 사유할 수 없는 길이다. 단편 7의 1-2행에서는 ‘있는 것이 있지 않다’의 역인 ‘있지 않은 것이 있다’는 길에서 사유를 차단하려고 이야기한다. ‘있는 것이 있지 않다’든 그 역이든 있음과 있지 않음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단편 7의 3-5행에서는 ‘많은 경험에서 나온 습관이... 잡소리 가득한 귀와 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한다. 잡소리 가득한 귀와 혀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단편 8의 38-42행에서는 가사자들이 ‘생겨남과 소멸함, 있음과 있지 않음, 장소를 바꿈과 밝은 색깔을 맞바꿈’ 등을 참되다고 확신하고서(pepoithotes einai alēthē) 마구잡이로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묘사된다. 잡소리 가득한 귀와 혀를 사용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가사자들의 이러한 행태가 잘못된 것이라면, 있음과 있지 않음이 섞여 있는 길은 사실은 ‘이름 없는’ 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편 6의 1행에서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있는 것이 있지 않다’는 길은 또한 말할 수 없는 길이 된다. 말할 수 없는 길은 아마도 이름 없는 길일 것이다. 단편 6과 단편 7을 종합하면, ‘있는 것이 있지 않다’는 길은 사유될 수 없고 이름 없는 길이라는 판가름이 여기에서 내려졌다고 할 수 있다.

단편 8의 16-18행에서 두 길을 대비시키는 방식도 이 두 길이 가사자들의 길과 단편 2의 첫 번째 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16-18행에서 여신은 사유될 수 없는 길은 참된 길(alēthēs hodos)이 아니라면서 이것을 ‘있다’의 길과 대비시킨다. 물론 단편 2에서 ‘있다’의 길이 진리를 따른다고 이야기된다. 하지만 ‘있지 않다’의 길이 참된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단편 2에 없다. 단편 2에서 두 길의 대비는 진리와 진리 아님의 대비가 아니다. 단편 2의

첫 길은 진리를 따른다는 이야기는 이 길은 바로 단편 1의 ‘진리의 흔들리지 않는 심장’을 나타낸다는 표시라고 보는 것이 더 그럴듯하다. 단편 1에서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신은 ‘진리의 흔들리지 않는 심장’과 ‘가사자들의 의견들’을 배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가사자들의 의견들에는 ‘참된 확신(pistis alēthēs)’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단편 8의 50행 이하에서 첫 번째 길을 멈추면서 여신은 ‘여기서 나는 진리에 관한 확신할 만한 논변(pistos logos)과 사유(noēma)를 멈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사적인 의견을 배우라고 하면서 자신이 할 이야기를 (말(logos)이 아니라) ‘단어들의 기만적인 질서(kosmos epeōn apatēlon)’라고 묘사한다.

이런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단편 8의 16-18행이 지칭하는 것은, 단편 2의 두 길은 아니라, 진리의 길과 의견의 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여신이 ‘사유’와 ‘배움’을 혼동한다거나 ‘사유’라는 말을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아무런 좋은 이유가 없다. 파르메니데스의 시에 등장하는 길들은 배움의 길은 돌고 사유를 위한 길은 돌고 있다. ‘배움의 길’이면서 ‘사유를 위한 길’은 정언화된 것으로서의 있음의 길이고, ‘사유를 위한 길’이지만 ‘배움은 없는 길’이 정언화된 것으로서의 있지 않음의 길이다. 그리고 ‘배움은 있지만 사유를 위한 것은 아닌 길’이 있음과 있지 않음이 섞여있는 길, 즉 ‘있음’도 ‘있지 않음’도 정언성을 확보하지 못한 길이다. 이렇게 길은 모두 셋이다.

V. 나가는 말

파르메니데스는 맥락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 *einai*를 정언화하고 이렇게 정언성을 확보한 것으로서의 있는 것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사유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그는 제대로 된 사유와 제대로 된 말(logos)을 연결시킨다. 예컨대, ‘파란 책이 책상 위에

있다’는 따위의 진술은 말(logos)이 아니라 단어들의 질서 있는 배열(kosmos epeōn)에 불과하다. 이런 진술은 진리를 담고 있지 않다. 책상 위에 있던 파란 책을 책꽂이에 꽂으면 더 이상 파란 책은 책상 위에 있지 않다. 또 책상 위에 있던 파란 책의 표지를 빨간 색으로 칠하면 더 이상 그 책은 파란 것으로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파란 책이 책상 위에 있다’는 따위의 진술들로 가득 차 있는 ‘의견(doxa)’도 배워야 한다. 이런 진술들이 진리는 아닐지 몰라도 일상적인 의미에서 참일 수는 있다. 파란 책이 책꽂이에 꽂혀있지 않고 책상 위에 있을 때에는 ‘파란 책이 책상 위에 있다’는 것이 참이다. 어쨌거나 ‘의견’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묘사이다. 때때로 이것은 법칙과 비슷한 일반성을 보여주기도 한다(단편 10, 단편 11, 단편 12, 단편 18).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기만적(apatēlos)이다. ‘의견’의 영역에도 ‘필연성’ 같은 것이 성립할 수 있고(예컨대,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뜬다. 단편 10, 7-8행), 사람들은 ‘의견’이 가지는 ‘필연성’을 진리가 가지는 필연성과 혼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혼동을 피하기만 하면 여기에서는 배움이 성립할 수 있다. 순수한 있지 않음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배움에 대한 념을 수 없는 장벽이 있지만, ‘의견’의 영역에는 그런 장벽 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정언성을 확보한 것으로서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전체로서의 우주인가?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소들인가? 단일한 성질만을 가지는 불변의 것인가? 세계의 형이상학적 원리인가? 플로티노스의 일자 같은 것인가? 신인가? 근세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실체 같은 것인가? 파르메니데스는 정언성을 확보한 것으로서의 있는 것의 특징들만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는 진정한 앎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언성을 확보한 것으로서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만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einai의 정언화 작업을 최초로 수행한 것인 만큼, 그는 einai가 정언화될 수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데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einai의 정언화관,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einai를 맥락을 초월해서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는 단어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existence)’나 ‘계사(copula)’나 하는 것들도 einai가 특정한 방식으로 정언화된 결과물이다. 파르메니데스에게 영향 받은 후대의 철학자들이 einai를 ‘존재’나 ‘계사’로 정언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 einai를 정언화하고 그것을 철학의 중심 주제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철학자들이 각기 어떤 방식으로 einai를 정언화했는지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강성훈(2012), 「고대 그리스어 ‘einai’에 해당하는 한국어는?: 비정언적 존재 개념으로 서의 ‘있음’과 ‘einai’」, 『서양고전학연구』 48, 77-115..
- 강철웅(2003), 『파르메니데스에서 진리와 독사(Doxa): 세 텍스트 부분의 상호 연관에 주목한 파르메니데스 단편 해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강철웅(2004), 「파르메니데스의 철학 단편에서 서시의 의미와 역할」, 『서양고전학연구』 21, 1-36.
- 김남두(2001), 「파르메니데스의 단편에서 탐구의 길과 존재의 규범적 성격」, 『서양고전학연구』 17, 1-26.
- 김인곤 외(2005),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선집』, 아카넷.

- Barnes, Jonathan(1979),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Routledge.
- Brown, Leslie(1994), “The verb ‘to be’ in Greek philosophy: some remarks”, in *Language: Companions to Ancient Thought 3*, ed. Steven Ever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dero, Nestor-Luis(2004), *By Being, It is: The Thesis of Parmenides*, Parmenides Publishing.
- Curd, Patricia(1998), *The Legacy of Parmenides: Eleatic Monism and Later Presocratic Thought*,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inkelberg, Aryeh(1988), “Parmenides’ Foundation of the Way of Truth”,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6.
- Kahn, Charles H.(1969), “The Thesis of Parmenides”, *Review of Metaphysics* 22.
- _____ (1973), *The Verb ‘Be’ in Ancient Greek*, D. Reidel Publishing Company (reprinted with a new introduction by Hackett, 2003).
- Ketchum, Richard J.(1990), “Parmenides on What There Is”,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20.
- Kirk, G. S., Raven, J. E., and Schofield, M.(1983),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Frank A.(2009), “Parmenides’ Modal Fallacy”, *Phronesis* 54.
- Mourelatos, Alexander P. D.(2008), *The Route of Parmenide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Parmenides Publishing (originally published by Yale University Press,

1970).

- Nehamas, Alexander(1999), "On Parmenides' Three Ways of Inquiry", in his *Virtues of Authenticity: Essays on Plato and Socr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originally published in *Deukalion* 33/34, 1981).
- Owen, G. E. L.(1960), "Eleatic Questions". *Classical Quarterly* NS 10 (reprinted in *Studies in Presocratic Philosophy* vol. II, eds. R. E. Allen and David J. Furley, Routledge and Kegan Paul, 1975).
- Palmer, John(2009), *Parmenides & Presocratic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 Robinson, T. M.(1975), "Parmenides on Ascertainment of the Real,"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4.
- _____ (1979), "Parmenides on the Real in its Totality," *Monist* 62.
- Sedley, David(1999), "Parmenides and Melissu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Early Greek Philosophy*, ed. A. A. Lo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ran, Leonardo(1965), *Parmenides: A Text with Translations, Commentary, and Critical Essay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din, Michael V.(2014), *Parmenides' Grand De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In Fragment 2, Parmenides says that there are two ways for thinking. One is the way that it is and that it is not possible not to be, and the other is the way that it is not and that it is necessary not to be. However, these two ways have been called the way that it is and the way that it is not, without proper explications of the existence of the modal parts. This paper suggests that what Parmenides did in his poem was to set up the Greek word *einai* (to be) as having a context-independent meaning, and that the modal parts were the device to show that he was doing just that. With this understanding, the first way turns out to be the way of being that is free of non-being, and the second way to be the way of non-being that is free of being. The status of the way of *Doxa*, then, becomes clear as the way that combines being and non-being, and the confusions about how many ways there are in Parmenides' poem and about which part of his poem belongs to which way can be explained away.

【Keywords】 Parmenides, Be, Thinking, Truth, Parmenides' Three Ways

논문 투고일: 2015. 3. 3

심사 완료일: 2015. 4. 21

게재 확정일: 2015. 4. 21